

단체 · 업체 · 교육기관 · 정부 위기의식 갖고 공동대처해야

인쇄 업계의 현실문제를 놓고 볼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인쇄 현장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과 인쇄 전문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취업할 때 현장근무를 기피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인쇄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감소해 교육기관들이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통적인 인쇄과에 다른 단어들을 첨가하거나 '인쇄'를 빼고 다른 이름을 쓰는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인쇄사에서의 현장 근무 기피나 교육기관에서의 인쇄과 모집의 어려움으로 과명 변경이나 폐쇄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현장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단순 노동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금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일의 인쇄업계는 더욱 더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답도 있게 마련이다.

■ 경영자 마인드 전환을

인쇄 교육기관의 문제를 다루면서 갑자기 '경영자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 의아해 할 독자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인쇄 전문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현장 근무를 꺼려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 당연히 업계의 현실과 직결되고 또한 업계를 움직이는 주체인 경영자들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경영자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조건과 환경으로 인재를 확보하고, 또 급변하는 환경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것인가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쇄업은 단순히 옛날 그대로의 아날로그 방식대로 운영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경영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에 나서는가 인쇄교육 및 업계가 어느 만큼 발전할 수 있는지의 잣대가 될 것이다. 특히 작금의 현실에서 경영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무작정 타사에서 데려오는 방식은 버려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제살각이' 밖에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남이 길러놓은 인재를 스카웃하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하다. 스스로 길러야 한다. 근로자들도 이제 오로지 '인컴'만 따라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철새근성'을 버려야 한다.

■ 중구 이미지 바꿔야

인쇄사 하면 먼저 중구에 있는 인쇄사를 떠올리게 된다. 중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요즘의 젊은이치고 환경이 좋다고 평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열악한 근로환경' 그 자체다. 인쇄의 메카인 중구 지역이 인쇄의 이미지를 어둡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중구 지역의 인쇄사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겠지만 인쇄의 장래를 위해서는 중구가 변해야 한다.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거나 기름기 없는 인쇄현장을 만들기 어렵겠지만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에서 클린사업장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 일부를 무상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다. 단체에 지원을 요구해 볼 수도 있다. 더욱이 인쇄가 서울시특화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에 특단의 지원을 요청해 볼만도 하다.

■ 단체역할 중요

인쇄산업에 필요한 인력은 학교나 정부가 아니라 인쇄업계라는 것을 직시하고 업계가 주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IMF이전에 서울조합이 실시하던 인쇄교육훈련

센터를 재가동하는 것이 절실하다. 어느 개인이나 특정사가 인재를 양성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단체가 정부와 관련업계, 기자재 공급업체와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인력양성에 직접 나서야 한다. 당장 교육기관이 설립이 어렵다면 신규인력 유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각 업체가 인턴사원제를 도입토록 한후 일정기간 임금을 보존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 정부 지원 이루어져야

국가문화부문 기간산업으로, 특화업종으로 지정만 해놓고 가장 심각한 문제를 도외시 한다면 기간산업이나 특화업종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젠



◆ 인쇄업계로 신규인력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절실하다.

인쇄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인력난만큼 ‘알아서 하라’며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세워주어

어렵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얼마만큼의 투자노력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만 만들어 놓으면 그

만인가. 그러고도 업계나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별로 없다. 말로는 디지

‘인쇄’ 이미지 제고 절실 “지식정보산업” 홍보 강화를

야 한다. 세제의 혜택과 병역지정업체 확대, 외국인근로자 배정확대 등을 시급히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 교육기관들이 인쇄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지금은 그나마 존재하는 교육기관들이 인쇄과를 없애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지 않는가.

■ 산·학 협력체제를

‘산학협력’이란 구호는 수십년전부터 내려오는 말이다. 그러나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산학협력을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산학모두 떳떳하지 못할 것이다.

교육기관들은 실습기자재가 부족해 업계가 요구하는 필요인력을 양성하기

털이고 행동은 아닐로그다. 단체나 업계도 교육기관에 질 높은 인력양성을 요구하면서도 지원은 ‘뒷짐’이었다. 교육기관에 얼마만큼 지원했고 앞으로도 그런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쇄기계를 공급하는 업체들도 판매에만 급급했지 인력양성에는 역시 소홀했다. 인쇄기를 공급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인력까지 패키지로 판매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제는 업계와 단체, 교육기관, 기기공급업체가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한다. ‘네댓 내댓’ 할 때는 이미 지났다. ‘공존’ 아니면 ‘공멸’이라는 위기의식을 함께 가질 때다. Ⓞ

윤재호부장 · 김광륜차장 · 이용우기자